

다락방 수능국어
23 수능 국어 대비

예열 지문 (언어)

수능 파이팅!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 예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취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A]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리적인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범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1.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㉔ _____ 분에게 추천합니다.

- 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3. ㉕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_____ < 보 기 > _____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이 필요 없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5.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가)

구겨진 하늘은 목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통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줍이 쳐.

[A]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짤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땃목**을 타고
돈 벌러 향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꿈처럼 어린 늬이 북극을 꿈꾸는데
늬은이는 늬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목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
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
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
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
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건
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즐
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
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
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
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
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
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뻗뻗이 늘어
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
고 작은 것들은 들뜬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
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
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
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
가?”

- 이육,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옥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4.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고함과 즐렘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5.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라'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래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년 3월 38~39)

현대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에 ‘-(으)ㄴ’이 있다. 접미사 ‘-(으)ㄴ’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뉘음, 기쁨’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에 ‘-(으)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으)ㄴ’이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묻-’에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인 ‘묻-’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에도 ‘-(으)ㄴ’이 있어서,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에서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형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미 ‘-(으)ㄴ’은 ‘-았/었-’, ‘-겠-’, ‘-(으)시-’ 등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파생 명사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예를 들어 ‘짜 그룹과[땅을 그림과]’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그룹’은 동사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그리다’의 파생 명사는 ‘그리-’에 ‘-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어미 ‘-음/음’이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음’이 쓰였다. 그러다가 ‘·’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입어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모두 ‘-(으)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 윗글을 통해 <보기>의 ㄱ~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을 잘 춤이 신기했다.
- ㄴ. 차가운 주검을 보니 그제야 그의 죽음이 실감이 났다.
- ㄷ. 나는 그를 조용히 도움으로써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했다.
- ㄹ.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 ㅁ. 그를 전적으로 믿음에도 결과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 ① ㄱ에서 '고난도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명사이고, '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 ② ㄴ에서 '죽음'은 접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주검'과는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③ ㄷ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ㄹ에서 '알'의 '-ㅁ'은 '알-'에 붙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
- ⑤ ㅁ에서 '믿음'의 '믿-'과 '-음' 사이에는 선어말 어미 '-었-'이 끼어 들 수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중세 국어 용언들의 ㉠과 ㉡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	㉡
①	(물이) 열다	어름	어름
②	(길을) 건다	거름	거름
③	(열매가) 열다	여름	여름
④	(사람이) 살다	사름	사름
⑤	(다른 것으로) 곱다	꺄름	꺄름

현대시
3 3 1 4 1 4

독서
5 1 1 4 3

언어
4 1